

‘모던보이’ ‘모던걸’ 차 한잔 하실래요?



‘광주1930’·‘스토리 클럽’
1930년대 사교클럽 재현
김현승 등 실존 인물과
상상 인물 스토리 전시
30일까지 양림동 다형다방



“1930년대 광주 양림동에 한 허름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카페에는 자주 드나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땀이 나는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의 그들은 스스로를 시대와 유행을 앞서가는 ‘모던보이’와 ‘모던걸’이라 불렀다. 이들은 카페에서 만나 친해졌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날을 샀다. 사람들은 이 무리를 가리켜 ‘1930 사교클럽’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못 젊은 여성과 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티타임이 시작됐다’라고 수군거렸다.”

1930년대 가상의 사교클럽이 양림동에 만들어졌다.

‘광주1930’과 ‘광주1930 스토리클럽’(이하 스토리클럽)은 오는 30일까지 다형다방에서 ‘1930 사교클럽_모던보이, 모던걸의 티타임’전을 연다.



‘광주 1930 스토리클럽’ 2기 회원들.

이번 전시는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은 팩션(Faction) 스토리다. 1930년대를 양림동에서 보냈던 시인 김현승, 여성상인 김세라 등 실존했던 근대 광주의 대표적인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스토리클럽 회원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새로운 인물과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다.

‘광주1930’은 1930년대 광주 문화예술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획 단체다. 시민들의 주도로 당시의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 내보이며 집단창작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인 소재와 주제를 발굴하는 스토리클럽을 만들었다. 이번 전시도 스토리클럽 2기 회원들의 결과물이다.

‘광주1930’ 이나영 팀장은 “1930년대는 광주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가장 흔했던 시기로 광주 문화의 답이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다”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보물처럼 담겨 있고, 또 그것들을 찾아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스토리클럽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스토리클럽 2기 회원인 주성진, 강동수, 정세은, 김은우, 신미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1930’을 주제로 당시 인물, 건축물, 시대상, 종교 그리고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모임을 이어나갔다.

매주 한차례씩 모여 발제를 듣고, 각자가 찾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 나갔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스토리클럽을 총괄담당한 ‘광주1930’ 김꽃씨씨는 “회원들이 실존 인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인물과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며 “가상의 인

물과 실존 인물의 러브스토리 등 무엇보다도 특정한 틀이나 경계가 없어서 더욱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토리클럽 2기 회원들은 각자가 만든 스토리를 바탕으로 다형다방도 직접 꾸몄다. 특히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들의 이야기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그들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

건축학도를 꿈꾸는 주성진·강동수씨는 자신들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빌려와 1930 사교클럽 멤버였던 건축학도 ‘박성동’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스케치한 양림동의 근대 건축물들을 함께 전시했다. ‘박성동’은 실존했던 여성상인이자 근대 패셔니스타였던 김세라의 권유로 사교클럽에 들어왔다.

광주의 모던걸을 대표했던 김세라는 활발한 성격으로 사교클럽의 분위기를 휘어잡았던 인물이다. 항상 서양잡지를 탐독하고,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걸 즐겼다.

광주극장을 만든 호방한 상남자 최선진과 익명의 여성 칼럼니스트 K는 ‘쌈’ 타는 사이다. 겉으로는 앙숙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진은 내심 K를 좋아하고, K는 최선진을 사업확장에만 관심 있는 속물로 생각한다.

이밖에도 커피 애호가 김현승 시인의 스토리와 함께 노트, 찻잔, 오래된 시집 등이 전시되고, 사교클럽 멤버들을 동경했던 수피어이고 학생의 방도 재현돼 있다.

한편 광주1930은 오는 13일부터 스토리클럽 3기 회원들을 모집한다. 문의 070-4239-5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미리 작·지리산 천왕봉

쪽빛! 산천을 물들이다

천연염색 산수화전... 금호갤러리 8일까지

천연염색에 회화 기법을 도입해 표현한 이색적인 산수화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물빛 전통 천연염색연구소는 최근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쪽빛! 산천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천연염색 전시회를 개막했다.

전시회에는 ‘여명’, ‘지리산 천왕봉’, ‘세월’ 등 산수화 30여점과 문양 염색 작품 30여점이 오는 8일까지 선보인다.

홍루까 하늘물빛 연구소 대표의 지도로 김말래, 김여진, 김용심, 박미리, 이지현, 홍성자, 홍성하씨 등 광주 회원 7명이 작가로 참여했다. 천연염색에 회화적인 기법을 도입해 산, 들, 나무를 화폭에 담은 산수화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전시회 관계자는 “호남에서 주도해온 천연염색은 그동안 옷감을 한가지 색의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침염기법’이 주류를 이뤘다”면서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침염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산수와 문양들을 표현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자문위 발족



강우현 대표



김명중 교수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시민 사회와의 소통 협의기구인 ‘광주비엔날레재단 자문위원회’가 발족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전용철)은 오는 8일 각계각층 15인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재단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자문위원회’는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소통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 재단의 주요사업 추진과정과 내용을 시민사회와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강우현(제주남이섬 대표), 강진혁(이노션 국장), 김광욱(광주발전연구원), 김명중(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호(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김정현(상상창작소 봄 이사), 박준준(601 비상 대표), 윤성진(주스컴퍼니 예술감독), 윤영아(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정금희(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정성구(도시문화재단 CS 대표), 정희남(대담갤러리 관장), 천의영(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재영(광주미술협회 부회장), 한희원(화가)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지난 27일 열린 예술감독 선정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채중기(은암미술관장), 이이남(미디어 아티스트)씨가 예술감독 선정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